

동구 방치된 빈집 648채... ‘직권 철거’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고 피해 잇따라...붕괴 위험도
구 “홍물 빈집 행정대집행”...5년 정원·덧발 활용

도심 속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가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빈집은 올해 6월 기준 648호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1등급 212호, 2등급 386호, 3등급 50호다. 국토교통부 ‘빈집 정비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은 빈집을 1~3등급으로 분류해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등급(활용 대상)은 별도 보수 없이 또는 보수 후 활용 가능하고, 2등급(관리 대상)은 안전조치, 3등급(정비 대상)은 철거가 각각 필요하다.

실제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들이 지난 겨울 폭우로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 동구 산수동의 빈집 주택 담장이 무너져 80대 고령자가 거주하는 앞집 주택의 담벼락과 외부 벽면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80대 고령자는 안전을 위해 임시주거지로 대피하는 일을 겪었다.

지난 2023년 7월에도 대인동에 위치한 1층 규모 목조주택의 벽체 일부가 무너졌으며, 동구 충장로의 한 상가도 무너져 추가 피해 예방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지난해 7월 10일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노후주택 담장이 무너져 앞집 담벼락을 덮쳤다.

할 수 있는 빈집은 집주인이 손 놓고 방치하거나 소유권이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인 게 문제다.

이에 따라 동구는 빈집 직권 철거에 나섰다. 지자체가 사유재산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동구는 지난 11일 빈집 4호

(서석동·지산동·계림동·산수동)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 공사승달 공고문을 올렸다.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11월 빈집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동구는 철거된 빈집 부지를 5년간 정

원, 텃밭 등으로 조성·활용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빈집 수시 실태조사, 철거 명령 사전 예고로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 지자체의 제도적 관리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송정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면 외벽 균열, 지붕 파손, 기초 침하 등이 진행돼 집중호우나 태풍 시 붕괴 위험이 높고, 전기·가스 시설이 사실상 방치돼 화재 가능성도 높다”며 “철거 명령 후 집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비·지방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마을 단위 감시단 운영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ADHD 치료제 처방 급증...오남용 주의

청소년 처방 증가세...불면증·틱 등 부작용 발생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건수는 7만398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는 지난 2022년 3만7122건에서 2023년 4만5491건, 지난해 5만2296건으로 늘었다. 전남 역시 2022년 1만3523건, 2023년 1만7289건, 지난해 2만1687건으로 증가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집중력 향상과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278건이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7건), 자극 과민(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이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 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47건(56.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ADHD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처방이 늘어나는 만큼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구 감탄마을 초등학교 연합운동회 13일 광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감탄마을 초등학교 연합운동회'에서 치평동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공연팀이 댄스공연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인사 청탁’ 뇌물 받은 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법원, 징역 5년·벌금 1억6000만원 선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실제 채용에 관여한 광주 한 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농협 A조합장(6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6000만원을 추징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에게 돈을 준 해당 농협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조합장은 지난 2014~2020년 B씨 등 농협 임직원들로부터 상임이사 선출·임원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기고,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조합장은 이미 채용 내정자를 뽑아 놓고, 시험 당일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면접관에게 건넸다. 실제 최종합격자 4명은 다른 응시생보다 26점 가량 높았다. 함께 기소된 2명은 상임이사 승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벌인 광주지검은 오랜 기간 재임한 A조합장을 통한 승진 청탁이 관행

처럼 이뤄져 왔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재판부는 “A조합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권을 갖는 상임이사 재선, 직원 승진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면서 “직원 채용 면접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명해 최종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직무 권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전동킥보드 뺑소니 ‘비수도권 1위’

5년간 25건...전남도 7건 발생

광주 지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뺑소니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 이어 대구(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경북(5건)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는 2020년 관련 사고가 없었는데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2024년 8건 등으로 늘었다.

전남은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159건, 서울 94건, 인천 32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청도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6:15 ~ 18:40
달빛 ---:--
달빛 14:37



광주	구름	22~30
목포	구름	23~29
여수	맑음	24~31
순천	구름	24~30
구례	구름	22~30
광주	맑음	22~31
임도	맑음	23~30
흑산도	구름	23~28
고흥	구름	22~31
진도	맑음	23~30

목포	미물(고)	07:22 / 20:35
여수	미물(저)	00:24 / 12:31
	미물(고)	01:34 / 23:02
	미물(저)	08:13 / 23:02

헤어진 연인 차량에 ‘본드’

만년필 친구의 차량에 본드를 바른 3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5시 12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별한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

그는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와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손잡이 등에 본드를 발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